

# 아·름·다·운 살·사·람

/category/bosal.asp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5월 31일 수요일(주간) 제 580호

17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하상춘 회장은 "일반인들과 장애우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5월 25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청 인근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복지회 사무실. 하상춘 회장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서울특별시 시의원 출마자 중증 장애인 박정혁 후보를 반갑게 맞이한다.

"약수는 한 걸로 하지요"라며 하 회장이 먼저 말을 건네자 박 후보는 "장애인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권익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하 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연신 웃음을 짓는다.

하반신 마비로 전통휠체어가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하 회장과 중증 장애인인 박 후보의 만남.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약수조차 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말 보다는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1949년 경북 달성읍 농촌 마을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하 회장.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가 되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비록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움직일 수 없어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한글을 깨쳤고 17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에게 집이 되기 싫어 동네 친구와 함께 독립을 하기 위해 무작정 전라도 목포로 갔다.

목포에서 처음 한 일은 동네 가게를 들며 불펜 등 사무용품을 파는 일. 억지로 죽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뭔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하 회장은 문구용품을 파는 일조차 행복이라 여겼다. 이후 경기도 송탄에서 약세사리 장사도 해 보았고 심지어는 전철이 개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구걸까지 하는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하 회장은 "정말 억척같이 살았다"고 회고한다.

"29살 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때부터 더 책임감이 생기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두배, 세배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으니 가족을 위해서라면 할만큼 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하반신 불구로 살아온 하 회장은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를 경험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휠체어를 보급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한 하 회장은 1995년 사재를 털고 주위로부터 회사를 받아 휠체어 80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를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만해도 복지 정책이 지금과 달리 열악했기에 정부에서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주위에서 한번 하고 말겠지 하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 회장은 올해까지 400여대의 휠체어를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했다.

처음에는 사재를 털었고 매년 후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휠체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후원을 장려하는 텔레마케팅.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텔레마

케터들이 후원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그동안 모였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리고 후원을 독려한 결과 매년 꾸준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 회장은 장애인들의 결혼에도 관심이 많다. 자신도 가정을 가진 이후에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기 때문. 2003년 8쌍을 무료로 결혼시켰고 제주도 신혼여행비까지 마련해 주었다. 올해도 하반기에 결혼식을 열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개인택시 교통봉사대의 후원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야외 나들이를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6월 7일 300여명이 경기도 양평으로 나들이를 갈 계획이다.

## “조금 불편할 뿐 다른 것 없어요”

설과 추석에는 서울 시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증 장애인들에게 쌀과 고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도 하 회장이 빠뜨리지 않는 '행사'다.

장애인들이 사이에서 하 회장은 '대변인'으로 통한다. 말이 통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 회장에게 연락만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4일에도 하 회장은 강원도 횡성을 다녀왔다. 중증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말을 잘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가보니 진술서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다. 하 회장은 담당 경찰에게 장애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큼니다. 보이는 그대로 순박하고 거짓말조차도 잘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단지 신체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항상 뭔가 잘못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는 그렇지 않은데도요. 앞으로 그같은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어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하 회장. 그러나 사찰에 가겠다는 생각은 포기하지 오래다. 휠체어가 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찰이 드물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장애인복지회 하상춘 회장



자원봉사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하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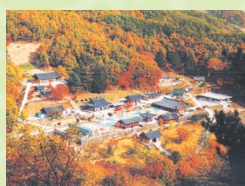
구걸까지 하며 사회적 편견·소외 경험  
11년간 휠체어 400여대 무상으로 보급  
무료 결혼 등 장애인 복지 인권에 앞장  
“법당까지 오르기 힘들어요...관심 부탁”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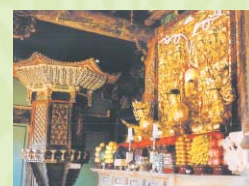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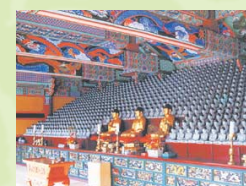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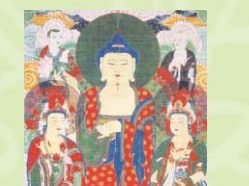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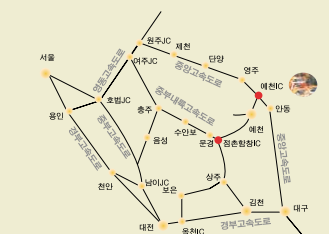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진식 강경각인 윤장대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전룡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감용사, 부석사, 청량사, 홍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룡 저수지 있음  
• 방생처량 대형저방 주처 가능